

## 통합특별시장 경선 첫 '진검승부'...유권자 관심 집중

### 6·3 지방선거 D-78

더불어민주당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한 가운데 김영록·강기정·정준호·주철현·신정훈·민형배(기호 순) 등 경선 후보 6명이 17일부터 이틀 간 첫 TV 토론회를 통해 '진검승부'를 펼친다. 예비경선(19-20일)을 이틀 앞두고 공개 석상에서 펼쳐지는 첫 정책 대결인 만큼 초대 통합특별시장 자리를 향한 각 후보들의 핵심 정책과 리더십 검증 무대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2·3·4면

민주당 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에 나선 후보 6명은 17일 A조, 18일 B조로 나눠 광주MBC 스튜디오에서 조별 TV 토론회를 진행한다.

첫날인 17일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주철현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이 토론에 참여한다. 18일엔 정준호 국회의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이 맞붙는다.

당초 토론회는 총 7명의 경선 후보를 4명, 3명씩 A·B조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상임수석부위원장이 16일 경선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민주당 공판위는 A조 4명, B조 2명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택했다.

토론회 시간은 20분로 조정했다. A조는 오후 5시30분부터 7시까지 90분 동안, B조는 오후 5시50분부터 6시50분까지 60분 가량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는 19-20일 예비경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처음으로 비교할 수 있는 공개 검증 무대라는 점에서 경선 초반 판세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핵심 관전 포인트는 통합특별시장의 미래 산업 전략을 둘러싼 정책 경쟁이다. 그동안 각 후보들은 반도체산업과 인공지능(AI) 산업,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통합특별시장의 핵심 성장 축으로 제시해 왔다.

광주의 AI 산업 기반과 전남의 재생에너지 자원, 넓은 산업 부지를 결합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

민주당, 오늘부터 경선 후보 TV 토론  
A조 김영록·강기정·주철현·민형배 격돌  
내일 B조 정준호·신정훈 1대1 '맞대결'  
19-20일 예비경선 목전 정책·자질 검증

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산업 유치 방식과 재정 투입 전략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놓고 후보 간 차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행정통합 이후 광주와 전남의 균형 발전 전략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통합특별시가 단일 행정체계로 운영되지만 권역별 발전 격차를 최소화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성장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배치와 산업 입지, 광역 교통망 구축 등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을 놓고 후보들의 치열한 정책 경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통합특별시 운영 방식 역시 중요한 검증 대상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 체계를 통합해 새로운 광역 행정 모델을 구축해야 해 조직 개편과 권역별 행정 거점 운영, 행정 효율성 확보 방안 등이 토론 주제로 다뤄질 공산이 크다.

특히 통합 청사 운영과 권역별 행정 기능 배치 등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이견이 적지 않았던 터라 후보들이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을 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20조원 규모의 정부 재정 인센티브와 재원 활용 전략도 관심사다. 통합특별법을 통해 확보된 정부 재정 지원을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정책 구상에 따라 유권자들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TV 토론이 단순한 정책 발표를 넘어 후보들의 정책 역량과 리더십을 종합 검증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직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등 정치적 무게감이 있는 후보들이 대거 출마한 만큼 통합특별시장의 미래 비전과 발전 전략을 둘러싼 치열한 정책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19-20일 100% 권리당원 투표 방식으로 예비경선을 실시해 후보를 5명으로 압축한 뒤, 4월3-5일 '권리당원 50%+시민여론조사 50%' 방식의 본경선을 치른다. 본경선에서 50% 이상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4월12-14일 본경선 상위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김재정·변은진기자



원만한 봄...활짝 핀 목련 원만한 봄 날씨를 보인 16일 오후 광주 동구 동명동 카페거리에 목련이 활짝 피어 점심시간 식당을 찾는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김애리기자

### '케데헌' 아카데미 2관왕 장편 애니메이션상·주제가상 수상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미국 아카데미(오스카) 시상식에서 2관왕에 올랐다. ▶관련기사 17면 '케데헌'은 1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수상작으로 호명됐다.

연출자 매기 강 감독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저와 닮은 분들'이 주인공인 이런 영화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미안하다"며 "이 상을 한국과 전 세계 한국인에게 바친다"고 밝혔다.

영화의 주제곡 '골든(Golden)'도 주제가상을 받았다. 이 곡을 부른 가수이자 공동 작사·작곡가 이재는 무대에 올라 "이 곡은 성공이 아니라 회복력에 관한 노래"라며 "어린 시절 사람들은 K팝을 좋아하는 저를 놀렸지만 지금은 모두가 우리의 노래를 부른다.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케데헌'은 악령 사냥꾼인 걸그룹 헌트릭스가 사람들의 영혼을 노리는 악령 보이그롭 사자 보이즈와 맞서는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이다. 지난해 6월 공개된 이후 글로벌 누적 시청 5억회를 넘기며 '오징어 게임' 시리즈를 제치고 역대 넷플릭스 콘텐츠 가운데 최고 흥행을 기록했다. /최명진기자

### 이병훈 "경선 불참"...특별시장 6파전 압축

"고심 끝 감각이 경선열차 내릴 것"  
"타 후보 연대 여부 숙고해 결정"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에 출마했던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상임수석부위원장이 16일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경선은 김영록·강기정·정준호·주철현·신정훈·민형배(경선 기호 순) 후보 6파전으로 압축됐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깊은 고심 끝에 숨겨왔던 감각이 경선 열차에서 내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민주당의 경선 시계는 새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며 "특별법 통과 전부터 시작된 잦은 여론조사 이미 편승 효과를 만들어버렸고 그 흐름을 고스란히 안은 채 경선 열차는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구나 현역이 아닌 저 같은 후보의 경우 정책으로 유권자들을 설득할 시공간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책으로 유권자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타 후보와의 연대 여부와 관련, 이 부위원장은 "특정 후보와의 합종연횡을 염두에 둔 결정이 아니라 작금의 정치 현실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며 "지금 아무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2면에 계속 /변은진기자

Today	
피해규모 다룬데재난지원금은 '동일'?	6면
'공동체돌봄 실천60년' 허여성숙 원장	9면
KIA 김호령 '커리어하이 다시 쓴다'	16면

## 대한민국이 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 한국전력은 전기에 집중합니다

시 강국의 꿈,  
에너지고속도로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전기가 필요한 시대  
한국전력은 최첨단 전력기술 기반의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더 많은 에너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달리게 하겠습니다.

## 지금, 전력이 전략입니다

**에너지고속도로란?**  
대규모 전력을 전송하기 위해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첨단산업 등 전력수요지를 잇는 국가전략형 구축사업